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권민지 책임연구원 (minji.kwon@bnkfg.com)

최근 주요국 통화 환율은 2015년 12월 미국 금리인상과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국민투표를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 위안화는 절하되었으나 엔화 및 유로화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폭 절상되었다. 이후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달러 및 엔화강세로 이어지는 반면 유로화 및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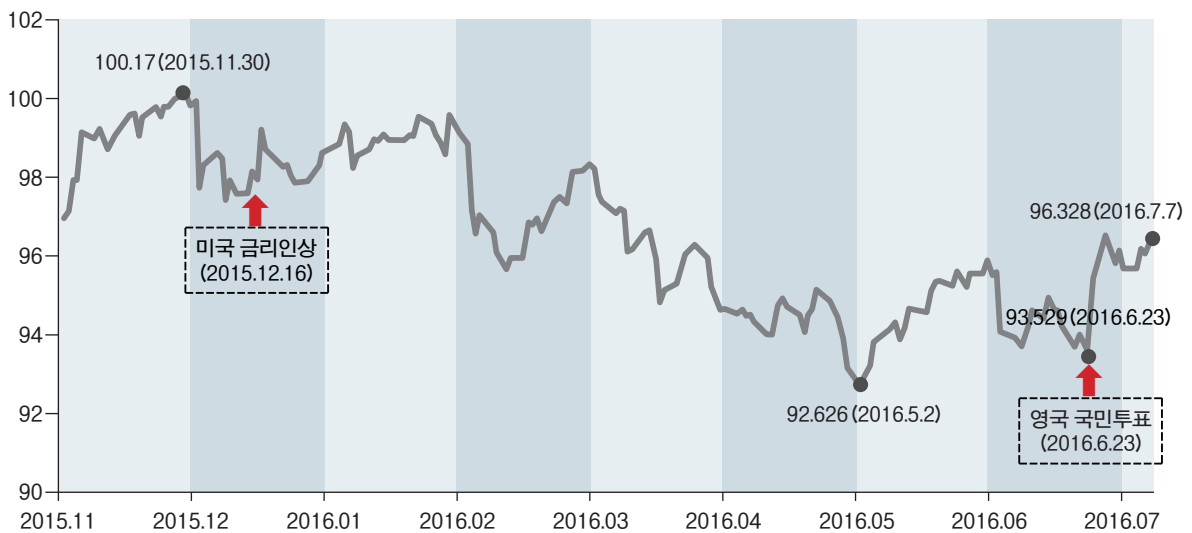
향후 주요국 통화 환율은 미국 금리정책, 주요국 통화정책, 영국과 EU간 브렉시트 협상 진전 상황 및 중국경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로 미국 금리인상 지연 전망이 우세하며 ECB 및 일본은행의 추가 통화완화정책 실시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 통화 환율은 경제기초여건이나 중국 및 유럽경제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2월 미국 금리인상 이후 미 달러화는 하락세

미국 달러화는 2015년 12월 금리인상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금리인상 이전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달러화 가치지표인 달러인덱스(Dollar Index)는 금리인상 직전 100.170(2015.11.30)을 고점으로 하여 5개월 동안 92.626(2016.5.2)까지 7.53% 절하되었다. 달러화는 과거 세 차례의 금리인상 사이클에서도 금리인상 직전 상승하고 금리인상 이후 3~6개월 동안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 바 있다.(〈참고〉 참조)

달러인덱스는 5월 초 저점 이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인상 지연 전망이 엇갈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지난 6월 23일(런던 현지시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¹⁾를 기점으로 93.529(2016.6.23)에서 96.328(2016.7.7)로 2.99% 절상되었다.

달러인덱스 동향



주 : 상승은 강세(절상), 하락은 약세(절하)

자료 : Bloomberg

1)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 : 탈퇴 찬성 51.9%, 탈퇴 반대 48.1%

[참고] 미국 금리인상기 달러가치 변동

미국 달러인덱스는 과거 금리인상기에 인상 전 90일 간에는 2~5% 상승하였고 인상 이후 90일까지는 3~5% 하락하였다.

- ① 1994.2.4 ~ 1995.2.1 : 3% → 6% (+3%p)
- ② 1999.6.30 ~ 2000.5.16 : 4.75% → 6.5% (+1.75%p)
- ③ 2004.6.30 ~ 2006.6.29 : 1% → 5.25% (+4.25%p)
- ④ 2013.5.23 (벤 버냉키 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미국 금리인상 전후 달러인덱스 변동률

(%)

	-90일 ¹⁾	+30일	+60일	+90일	+180일
1994년	+4.2	-2.4	-5.4	-5.1	-11.4
1999년	+4.3	-2.6	-3.0	-3.3	+3.0
2004년	+1.8	+0.03	-0.3	-4.6	-8.1
2013년	+5.4	+0.9	-3.0	-3.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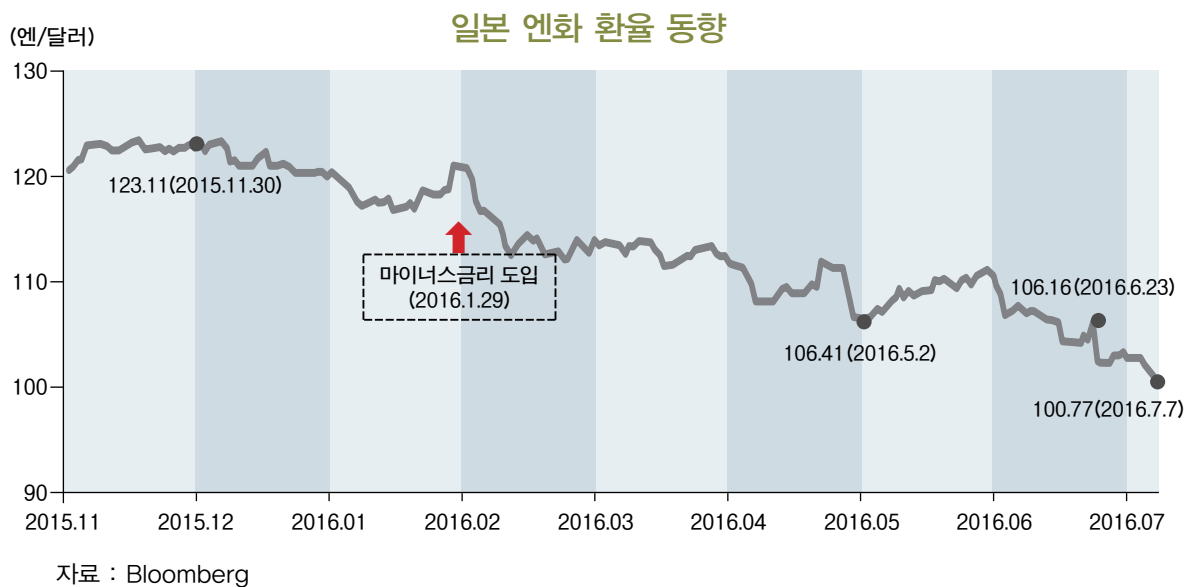
주 : 1) 인상일 기준 변동률

**미국 금리인상 이후 ~ 브렉시트 이전
엔화 및 유로화는 대폭 절상, 중국 위안화는 소폭 절하**

(일본 엔화)

일본은 금년 초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엔화가 달러당 120엔 이하의 강세를 보임에 따라 엔화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일반은행의 일본은행 예치금액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였다. 엔화는 정책 의도대로 소폭 절하되었으나 다시 강세로 돌아서 달러당 112.42엔(2016.2.11)까지 절상되었다. 더욱이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엔화는 달러당 106.41엔(2016.5.2)까지 절상되면서 2015년 11월 30일 대비 13.57% 절상되었다.

이와 같이 엔화가 강세를 보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이너스 금리 발표 당시 선진국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는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오히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위험회피심리가 확산되면서 선진국 주식 매도-엔화자산 매입 현상이 급증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0일,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미국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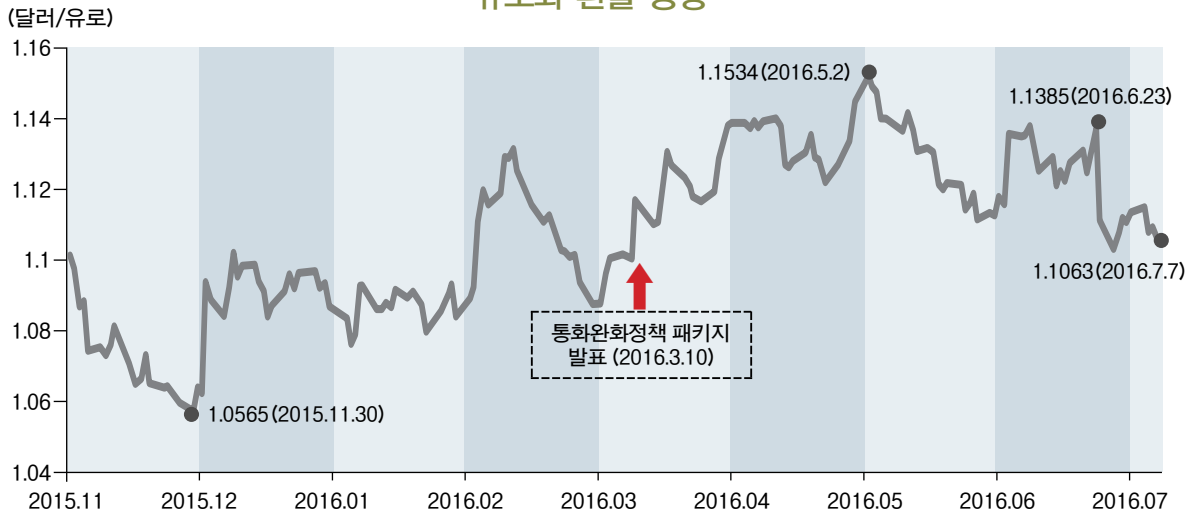


(유로화)

유로화도 2015년 12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 통화완화정책 이후 정책 의도와 달리 강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3월 10일 통화완화정책 패키지²⁾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추가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자 하락하던 유로화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유로화는 지난 미국 금리인상 이전의 하락세를 회복하면서 유로당 1.0565달러(2015.11.30)에서 1.1534달러(2016.5.2)로 9.17% 절상되었다.

2) 기준금리 5bp(0.05% → 0.00%) 및 예치금리 10bp(-0.30% → -0.40%) 인하, 양적완화규모 월 200억 유로 확대, TLTRO II 시행
 ※ TLTRO(Target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목표물 장기대출 프로그램) : 은행지원, 신용창출, 물가상승률 상승 등을 목표로 유로존 은행의 기업 및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유로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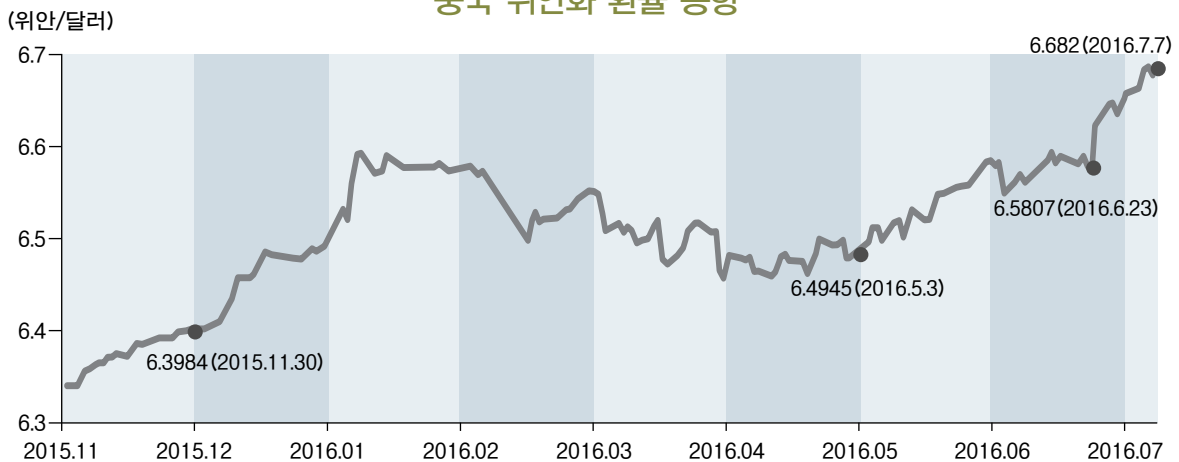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중국 위안화)

미국 금리인상 이후 중국에서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위안화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였다.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3984위안(2015.11.30)에서 장중 6.5962위안(2016.1.8)까지 상승하면서 위안화 가치는 1개월 동안 3.09% 절하되었다. 이후 4월 발표된 3월의 중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중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6.4945위안(2016.5.3)까지 하락하여 5개월 동안 1.50% 절하되었다.

중국 위안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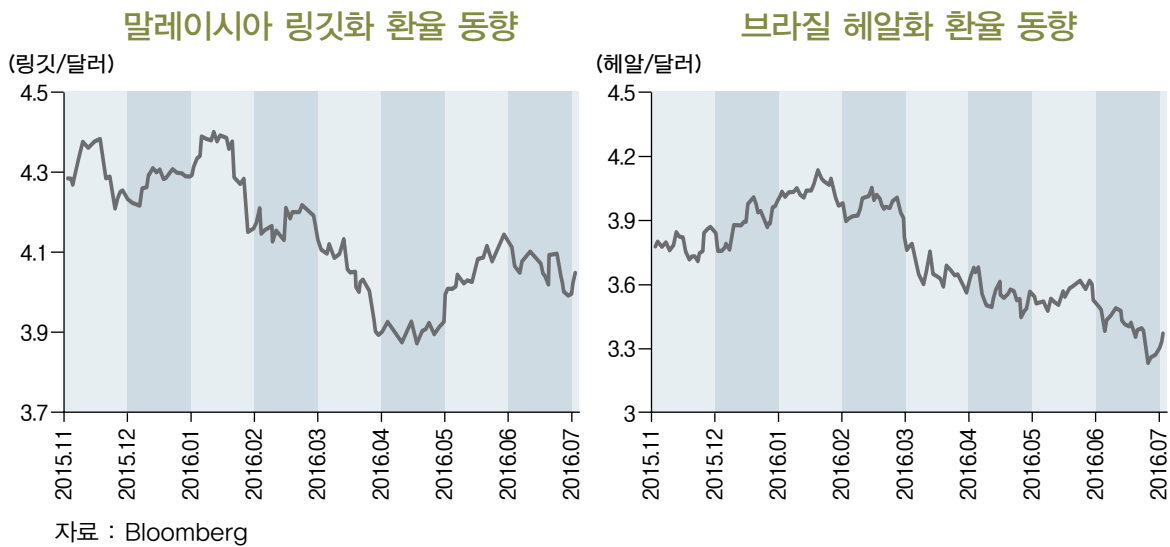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흥국 통화)

주요 신흥국 통화가치는 지난 1월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이는 미국 금리인상 이후의 달러약세, 미국 금리인상 지연 전망,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달러당 4.2600링깃(2015.11.30)에서 3.9160링깃(2016.5.2)으로 8.08% 절상되었다. 그중 3월 한 달 동안 7.22% 절상되면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미국 금리인상 지연 전망 및 유가 상승의 영향이었다. 브라질 헤알화 역시 1월에는 중국 위안화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정부회계 부정으로 인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세를 나타냈다.



브렉시트 이후 엔화는 강세, 유로화 및 위안화는 약세

(일본 엔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제자본이 안전자산인 엔화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24일 엔화환율은 장중 달러당 99.02엔까지 떨어지면서 100엔이 무너지기도 하였다. 엔화는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5.08% 절상되었다.

(유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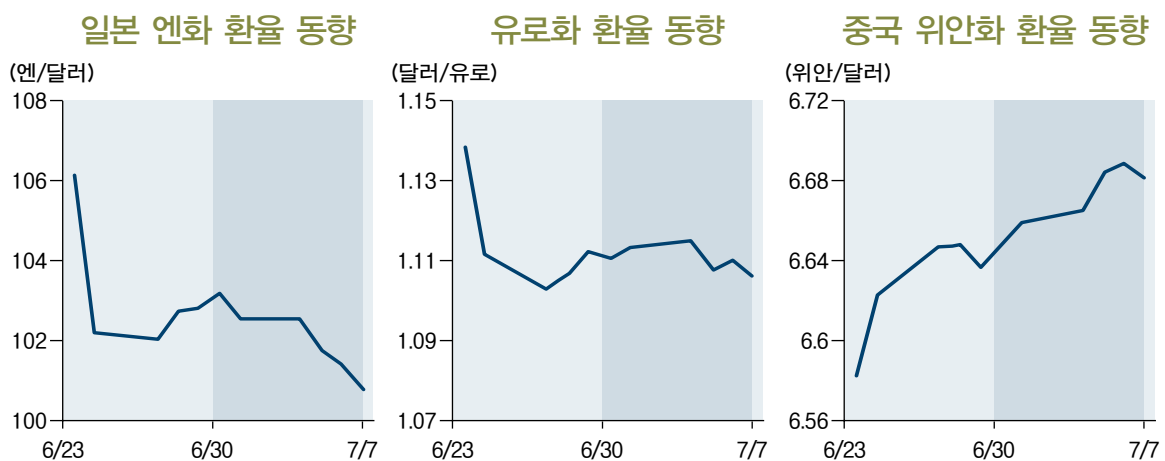
유럽은 영국과 함께 브렉시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유로화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3.16% 절하되었다. 이후 브렉시트의 충격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최근 영국의 부동산 펀드 대규모 환매 등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재조명 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

중국수출 중 對EU 수출비중이 16%에 달할 정도로 중국경제의 EU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중국 경제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위안화 가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6886위안(2016.7.6)으로 201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신흥국 통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등 신흥국 통화는 위안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소폭 강세를 보였다. 향후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적 불안 및 중국 위안화 약세 지속 등의 변동성으로 신흥국 통화 강세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자료 : Bloomberg

주요국 환율의 기간별 변동폭

구 분	미국 금리인상 (2015.11.30 ~ 2016.5.2)	브렉시트 (2016.6.23 ~ 2016.7.7)
달러인덱스	7.53% 절하	2.99% 절상
일본 엔화	13.57% 절상	5.08% 절상
유로화	9.17% 절상	2.83% 절하
중국 위안화	1.50% 절하	1.54% 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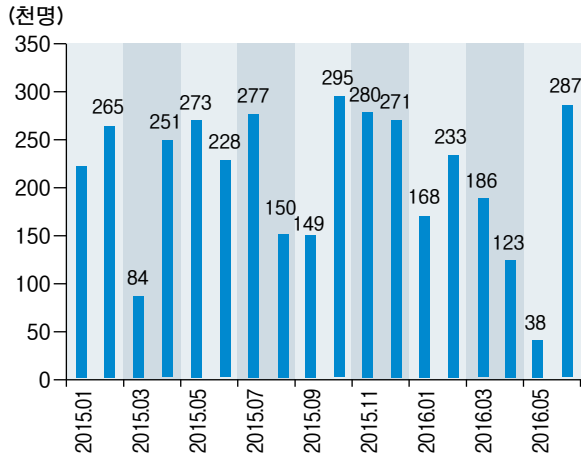
달러화 및 엔화는 당분간 강세 지속,
유로화 및 위안화는 약세 전망

향후 주요국 통화의 환율은 미국 금리정책, 유로지역 및 일본의 통화정책, 영국과 EU간 브렉시트 협상 진전 상황 그리고 중국경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 미국 금리인상은 지난해 말까지만 하여도 3~4회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중국경제 불안,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 속도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이유로 미국 금리인상은 미국 대선시기(11월)를 고려하면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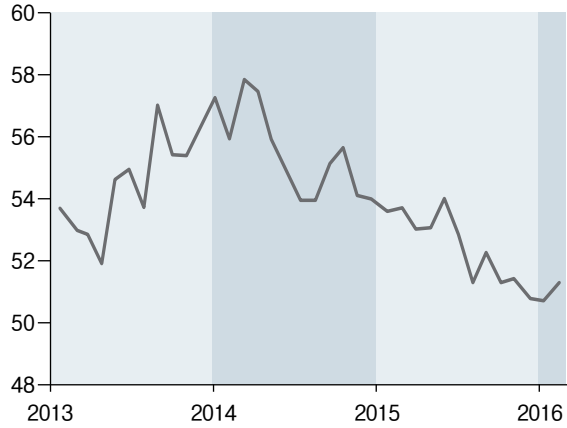
또한 미국 국내경제는 최근 등락을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 방향성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지난 3월 이후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증가폭이 둔화되어 5월에는 시장 예상치(17만명)를 크게 하회하는 3만8천명 증가에 불과하였으나 6월에는 28만7천명이 증가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5월에는 50.7로 200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6월에는 51.3으로 반등하였다.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증가



자료 : 미국 노동통계국

미국 제조업 PM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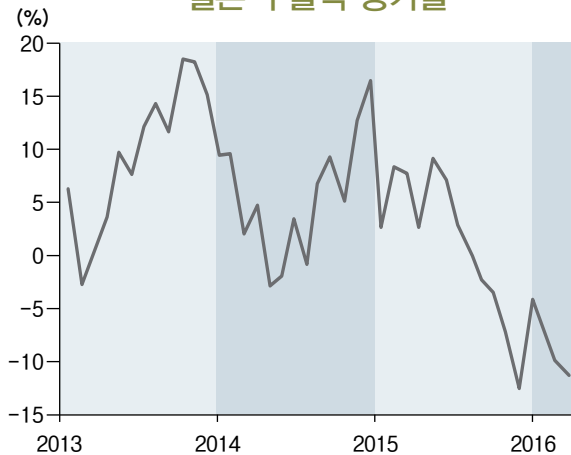
주 : PMI가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시사

자료 : Markit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ECB 및 일본은행은 추가로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유럽의 경제금융 및 정치적 환경 안정 여부에 따라 ECB의 통화정책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엔화의 경우 강세가 지속되면 기업심리가 약화되면서 경기하방위험으로 작용한다. 일본정부는 엔화 강세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나 지난 1월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엔화강세)을 고려하여 통화완화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수출액 증가율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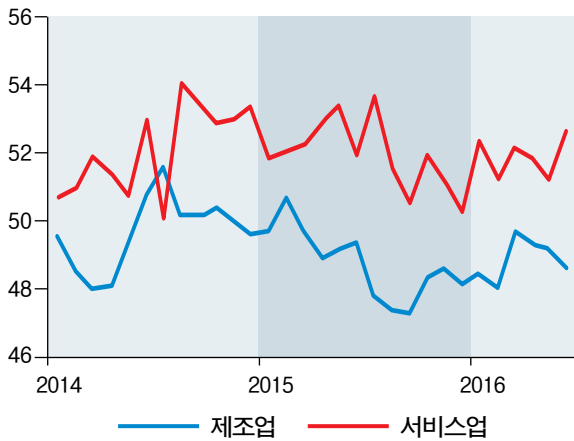
일본 소비자물가 지수



자료 : 일본 총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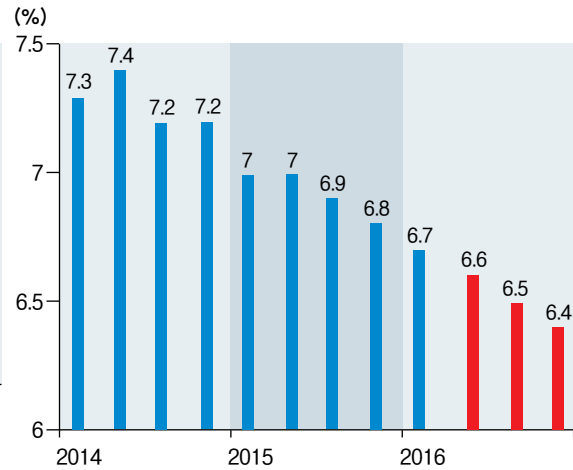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2015년 3월부터 50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어 중국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 부동산시장 및 서비스업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경제는 급격히 하락하기 보다는 완만히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제조업 PMI



주 : PMI가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시사
 자료 : 중국 물류 및 구매 연합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주 : 2016.2분기 이후는 전망치
 자료 : IMF, Bloomberg

한편 브렉시트는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EU 탈퇴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경우 EU 붕괴로 인해 세계경제 질서의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런던금융시장에서 미국 및 EU 회원국 금융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금융거래 위축도 우려된다.

이와 같은 전망에 비추어 달러화는 금년 중 강세를, 엔화도 통화완화정책의 강도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유로화 및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 통화 환율은 경제성장률,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등 경제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이나 중국 및 유럽경제에 대한 의존 정도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제투자은행(IB) 환율 전망

구 분	엔/달러				달러/유로				위안/달러			
	3Q.16	4Q.16	1Q.17	2Q.17	3Q.16	4Q.16	1Q.17	2Q.17	3Q.16	4Q.16	1Q.17	2Q.17
Barclays	92	87	85	83	0.99	0.96	0.90	0.85	7.05	7.20	7.18	7.20
Citigroup	104	104	105	104	1.11	1.13	1.15	1.16	6.68	6.71	6.75	6.80
HSBC	99	95	95	95	1.10	1.10	1.10	1.10	6.75	6.90	6.90	6.90
JP Morgan	103	103	102	101	1.13	1.15	1.17	1.18	6.63	6.75	6.5	6.70
Morgan Stanley	100	98	102	104	1.15	1.13	1.10	1.08	6.91	6.98	6.86	6.92
Nomura	100	104	106	108	1.07	1.05	1.05	1.04	6.80	6.94	6.99	7.05
Standard Chartered	105	100	95	100	1.07	1.03	1.00	1.03	6.70	6.67	6.63	6.61
평균	100	99	99	99	1.09	1.08	1.07	1.06	6.79	6.88	6.83	6.88

자료 : Bloomberg (2016.7.8 기준)

[참고문헌]

한국은행, “Brexit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전망 변화”, 2016.6.28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4.12

Financial Times, “Malaysia: relaxed over the ringgit”, 2016.3.31

_____ , “Endgame for dollar bull run approaches”, 2016.6.7

_____ , “Asia markets cautious ahead of US data”, 2016.7.8

The Economist, “China’s currency Bending, not breaking”, 2016.6.4

The Washington Post, “How Brexit could affect the Federal Reserve”, 2016.6.14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상위 조선행양기재기업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BNK금융그룹,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

함께 웃음짓는 행복한 세상,
BNK금융그룹의 꿈입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이
큰 행복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BNK금융그룹이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투자증권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BNK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nkfg.com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